

책 · 미 · 리 · 에

조직 아닌 네트워크를 남겨 놓고 가신 취산

지난 9월 7일 오전 10시, 이 땅에 '미내사'라는 놀랍고도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남겨 놓고 취산 선생께서는 다른 차원으로의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찌보면 미내사는 이상하고 놀라운 조직입니다. 취산 박영철 선생을 중심으로 96년 1월, 몇몇 초기 출자자들과 이구상씨의 도움으로 의식개발연구소의 한 공간을 빌어 시작한 미내사 저널 <지금여기>는 너무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밑거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내사는 그분들을 비롯해 미내사 회원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취산 선생께서 병석에 누워계신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저 나름대로 미내사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 방법들을 익혀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번역을 맡아준 번역자들, 초기 창립 발기시 100여만원씩 출자해 주신 분들, 취산 선생 해외 출장시 기꺼이 출장비용을 대주신 분들, 1,2회 심포지엄 행사 비용으로 선뜻 1천만원씩 기탁해 주신 분들, 차비만을 받아가며 미내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편집진들, 이 모든 분들이 없었다면 결코 미내사의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내사는 약한 다리나마 그 분들을 지팡이 삼아 서 있는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유형의 재산보다 무형의 재산을 한없이 남겨 놓고 가셨습니다. 고기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고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보석 같은 정보를 어떻게 캐낼 것인가이며, 어떻게 그것을 특정인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인가이며, 어떻게 조직을 만들지 않고 조직이 할 수 있는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선

생계서는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기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주이며, 소우주인 인체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뇌세포와 발바닥 세포가 역할만 다르지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듯 우리는 그런 조직을 꿈꿉니다. 그런 조직을 이루는 것에 '뜻'을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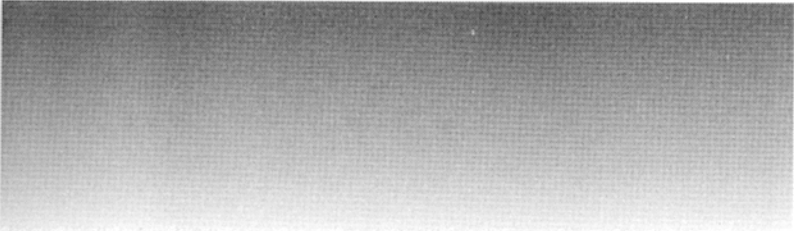
'삶은 게임이다'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감정도, 심지어 의식마저도 근원인 '참자아'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취산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내사는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이
지. 혼자서 즐기지 말고 여럿이서 즐기
도록 해."

취산 계실 때도 그러했지만 미내사는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삶의 진정한 놀이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나'와 동일시해서는 안되겠지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의식마저도 우리가 손을 쓰듯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놀이'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선생님께 배운 것은 바로 그렇게 '나'와 동일시 된 나의 '신념'들

원주,
미내사는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이 지
혼자서 즐기지 말고
여럿이서 즐기
도록 해
네게 지미 되지 않
우리랑 여겨지나
나도 좋아
5-5 취산



을 내려놓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것에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여기>에 실리는 글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론 치밀한 논리로, 때론 존재를 흔들어 놓는 감동으로 수많은 '나'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용기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을 스스로 떨쳐버리고 이러한 글들을 통해 자신을 더 넓은 조망(眺望)에 근거하여 재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현상이나 내용을 대할 때 그것이 아무런 의미없는 것이라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에게 <지금여기>는 공중에 이는 황토 흙먼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재료로 자신을 재구성하는 분들에게는 황금의 꽃가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지금의 미내사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금여기>를 발행하고, 행사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미내사가 참으로 놀라운 모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수의 회원들이 주저없이 미내사의 일에 참여해 주시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는 모습에서 새로운 협조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취산 선생께서 또 하나 남겨 주신 '미내사의 정신'이라는 유산입니다. 선생은 처음 미내사 브로셔를 만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내사 클럽은 수직적 조직이 아닙니다. 아주 자유로운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누구든 보다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와 하나의 '그물코'가 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에너지를 전체 그물에 보태어 놓습니다. 그렇게 날로 증폭되어 가는 미내사 모임의 창조적 에너지

지는 그대로 새문명 창조의 원동력으로 어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혀 어떤 작위없이 저절로 이뤄지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선생께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미내사는 '자유로운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전혀 어떤 작위없이 저절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산 선생께서 발을 갈고 씨를 뿌려 놓은 이곳에 우리는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늘 주위에 의지하는 미내사가 아니라 스스로 굳게 서는 미내사가 되고자 합니다.

다만 한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혹여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럴때면 주저없이 꾸짖어 주십시오. 친분이거나 어느 한 개인의 뜻과 이익에 영합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선택한 글들을 담은 <지금여기>가 귀하고 가치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천 개의 눈을 열고 7개의 차원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15일

이원규 올림